

## 地方 公共圖書館建立 契機로 본 實態

現在 設計 또는 工事が 일부 進行중인 仁川 大邱 榮州 등 3個 都市의 공공도서관이 今年중에 모두 完工 개관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국내도서관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한번 살펴 본다.

문교부는 今年 예산에서 10억원을 확보 또 다른 3個 地域에 도서관을 건립키 위해 지역물색 등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밖에 國立中央도서관이 現在의 3배 이상의 규모로 신축 移轉하는 計劃도 차질 없이 進行중에 있으며 國會도서관도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를 착수하는 등 圖書館界가 새로운 활기를 띄고 있다.

문교부가 내년 개관을 목표로 물색중인 3개지역은 현재 몇군데의 지방자치단체와 예산문제를 협의중에 있어, 어느곳에 세워질지 아직 모르지만 일단 보조예산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도서관 증설은 확실하다.

현재의 국내의 도서관은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 도서관을 모두 합쳐 3,717개(81년 현재)이며 열람석은 총 45만5천여석, 장서는 2천 8백60여만권으로 집계되고 있다. 열핏 외형적으로는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초·중 고도서관이 이중 무려 3천2백여개를 차지하고 있다. 초·중고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실 규모의 형태로서 거의 이름뿐인 형편이다.

장서 자체도 예산 때문에 물량중심으로 치우치고 있어 質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인구 1인당 장서량 역시 공공도서관의 경우 0.033권으로 1천명당 33권꼴로 외국에 비해 형편없는 실태이다. 일본은 1백명당 46권, 미국은 99권, 영국은 1,390권 덴마크는 3,271권으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 「도서관 文化의 不毛」를 그대로 입증케 하고 있다.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당면과제는 도서관법의 재정문제 이다. 현행법에는 각 시·도의 도서관건립이 권장사항으로 돼있어 이를 의무화하고 고치자는 등의 내용인데 이 숙원 과제가 곧 도서관 발전의 기본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다.